

1. 붉게 태어나는

제 1회

열아홉 살의 나는 집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몇 개의 등짝이 아득히 멀어져간다. 브래지어 끈 높이까지의 반곱슬머리를 풀어 내린 나는 정류장에 도착한다. 리바이스 청바지에 얇은 연 핑크색 카디건을 걸쳐 입었고 오른쪽 어깨에 멘 누르스름하게 빛바랜 천 가방은 볼록하다. 한 손으론 두 번 접은 편지를 꼭 움켜쥐고 있다. 오월의 건조한 밤. 나는 멀어져가는 그림자를 쫓듯 고개를 숙 내밀고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도로를 바라본다. 이차선 도로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광등이 번쩍인다. 자잘한 불빛들을 압도하는 붉은 빛.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진다.

“어이쿠, 웬 난리야.”

지나는 목소릴 듣고서 나는 어깨를 돌린다. 낮은 건물들과 주택들이 밀집한 블록 끝 야트막한 언덕 너머에서 회색 연기가 날린다. 엄청난 연기다. 어디선가 큰 불이 난 것 같은데 정류장 쪽에서 불길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결에 갈라지는 시커먼 그을음 섞인 연기만이 고목(枯木) 가지처럼 밤하늘로 구불구불 솟아오른다. 연기가 밤하늘로 흘러가는 회색빛 새털구름들에 스며들 무렵, 길가를 걷던 행인들과 정류장 앞 상가 점포에서 나온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춘다.

내 앞으로 커다란 소방차가 지나간다. 깊은 데까지 굽어서 태운 듯한 매캐한 바퀴냄새가 훑 끼쳐온다. 사이렌 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나는 양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본다. 정류장 앞 알파문구에서 하늘색 면포대기로 간난 아기를 엮고 나온 주인 새댁이 솟구치는 연기 뭉텅이를 손가락질한다. 저 봐라, 신기하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간난 아기에게 처음으로 동물원 코끼리를 구경시켜주듯이. 불구경을 하러 거리에 몰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드높아진다.

웬 불이야?”

“이 동네 불이 났던 적이 있었나.”

“아마도 여기 사는 동안엔 없었지. 저렇게 큰 불이라면.”

“쫓쫓. 어디서 나는 불이래.”

버스가 도착한다. 나는 솟구치는 연기를 훔쳐 돌아보다가 뒤에 서있던 승객에게 떠밀려 버스에 올라탄다. 뒤쪽 칸까지 걸어가서 손잡이 잡고 선다. 가속을 붙이며 언덕길을 오르는 버스의 승객들은 차창 밖 신기한 구경거리에 넋이 빠진다. 유리창에 드리워진 회색 연기 속에서 승승 뚫린 구멍처럼 여러 개의 눈동자들이 떠오른다. 이윽고 차창 밖으로 불길이 드러난다. 버스 안엔 술렁임이 가득하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유리창에 점 박힌 텅 빈 눈동자들을 재빠르게 삼키며 주홍빛으로 번식한다.

상의에 걸친 얇은 핑크색 카디건에서 희미한 탄내가 스친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도. 카디건을 끌어올려서 살며시 코끝에 대보는 사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호출기가 드르륵드르륵 진동한다. 검정색 모토로라 호출기에 찍힌 번호를 확인해본다. 호출기에 달아놓은 새끼손톱만한 고양이 고무인형이 달랑거린다. 나는 고개를 가웃하곤 턱을 들어올린다. 멀어지는 불길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언덕 너머 지대가 낮은 곳에서 난 불...내 눈이 고양이

고무인형의 눈처럼 굳어진다. 세워주세요! 빨리, 빨리요!

반쯤 열린 하차도어로 나는 황급히 뛰어내린다.

1993년 10월

열여섯 살의 너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빨랫줄에 널린 하얀색 교복 블라우스를 잡으려고 발돋움하고 손을 뻗는다. 햇빛 아래 교복 블라우스가 창백하다. 탁, 탁. 너는 블라우스를 끌어내리자마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갯 돌린다. 평상 위에서 네 살배기 쌍둥이 남동생들이 키득거리며 라이터로 장난을 치고 있다. 탁, 탁. 돌아났다가 사라졌다가 또다시 돌아나는 불씨.

위험해! 너는 후다닥 달려가서 어린 남동생들을 나무라며 라이터를 확 빼앗는다. 쌍둥이는 저들보다 훨씬 나이 많은 큰누나에게 머리통이 쥐어 박힐까봐 겁나게 달아난다. 너는 라이터를 친 채 잠시 평상 위로 드러눕는다. 평상에 누워서 보이는 그만큼의 조그만 하늘은 푸르다. 편편한 이마와 통통한 뺨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친다. 짧은 눈썹들이 하르르 일렁인다. 라이터 친 손을 턱 가까이 들어올린다. 탁, 탁. 여기의 작은 불씨가 저 높은 하늘에 달아서 붉은 석양을 드리울 수 있을까. 뜬금없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너는 전신거울 앞에 서서 하얀 교복 블라우스의 단추를 밑에서부터 한 칸 한 칸 채우고 있다. 가슴에 살이 좀 붙었다. 허리를 틀고 봉긋한 가슴을 내밀면서 입술을 삐죽거린다. 두 살 아래 여동생, 너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크고 짧은 쇼트커트를 한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납작한 것을 너에게 흑 던진다. 얼굴에 받고 보니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은 파스다.

여동생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리더니 입고 있던 잠옷바지를 내린다. 아무 문양도 없는 회색 스포츠팬티가 딸려 내려간다. 너는 악 소리조차 내지르지 못한다. 여동생의 허벅다리하고 엉덩이를 내려다보는 너는 경악한다. 피를 터뜨리고 짜부라진 채 죽은 쥐처럼 온통 피멍 자국이다.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래?”

“원래 운동하다보면 그래.”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는 너를 여동생이 붙잡는다.

“미쳤냐. 삼 개월 째 도장비도 안 주는데 이걸 보면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칠 거야.”

얼룩덜룩 커다란 멍이 너무나 끔찍했던 너는 후우우 한 숨을 내쉰다. 죽은 쥐를 보기 싫어서 슬쩍 신문지를 덮는 것처럼 턱을 모로 비틀고, 여동생의 엉덩이와 허벅다리에 파스를 붙인다.

너는 자주색 교복을 마저 챙겨 입고 부엌으로 간다. 엄마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도시락과 제각각 식사시간이 다른 여섯 식구의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냄비 속에 담긴 사골국물이 파란 가스레인지 불 위에서 끓어오른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집 안을 휘도는 누린내로 너의 속이 단박에 거북해진다.

지금의 너와 같은 나이였을 적에 너의 엄마는 소아마비 증세로 걸을 수 없었다. 학교통학조차 외할아버지 자전거로 해야 했고, 외할아버지에게 급한 용무가 생기면 아예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길고 무기력한 나날들이었다고, 한다. 훗날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상반신과 균형이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 다리로 결혼한 후에도 너의 엄마는, 네 명의 자식들 중 누구라도 조금만 다리가 옥신거린다고 하면 그게 자신의 유전자 탓일까 걱정이다. 그렇게 엄마의 노파심은 매일 아침 냄비 속에서 팔팔 끓어오른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울고 싶어라. 안방에서부터 노래가 흘러나온다. 요 며칠 아빠가 아침마다 틀어놓는 노래다. 아빠는 아침햇살이 환하게 비쳐드는 안방에 대자로 누워서 녹장을 부리고 있을 것이다. 출근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아빠는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끈적거리고 녹녹한 리듬을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꺼내 마신다.

식탁 위에 찬그릇을 부려놓던 엄마는 너를 보고 생각났다는 듯 부리나케 부엌 서랍장 맨 위 칸을 연다. 서랍장 안에선 봉황 두 마리가 새겨진 붉은 비단 지갑이 나온다. 비단지갑 지퍼를 열고 손가락을 꼬물거리던 엄마가 주먹 쥔 손을 천천히 펼친다. 너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내민다. 손금이 자글자글한 엄마의 손바닥 위, 푸른 옥으로 만든 세로로 길고 동그란 도장. 엄마는 자기 밑으로 낳은 간난 아기의 민머리를 어루만지듯이 애뜻한 손길로 몽툭한 도장 끝을 매만진다.

“예쁘지.”

“새로 짠어”

“응. 금융실명제 때문에 통장을 새로 만들었잖아.”

“새 통장 만든다고 도장까지 새로 파”

“그럼! 내 이름으로 만든 첫 통장인데.”

결혼해서 지금껏 남편이름의 통장만 소지해보았던 엄마. 이제 드디어 자기 이름의 통장을 갖게 된 엄마가 흥분된 걸음으로 또다시 무언가를 들고 온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제일은행 통장이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빠가 좋아하는 가수 김수희가 목청을 벌려 절정으로 치달고 있을 때 엄마는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통장을 펼친다. 그리고 펼친 통장을 너에게 자랑스럽게 내민다. 신 양금. 너는 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통장을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일별한다.

“서울대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치?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다 했을까”

몇 달 전 대한민국 14대 신임 대통령이 문민정부 출범을 내세우며 연설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서, 생김새가 속을 알 수 없게 음흉하게 생겼다고 탐탁지 않게 여겼던 엄마는, 자기 이름이 박힌 통장을 가슴에 품게 되면서 어느새 대통령 지지자가 되었나 보다.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엄마의 새 통장을 반투명 비닐커버에 집어넣고서 식탁 위로 툭 내던진다.

너는 식탁의자를 지이익 소리 나게 빼면서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여동생을 부른다. 박 현선! 깎두기와 간장에 조린 메추리알과 종종 썬 파를 뽕족한 젓가락 끝으로 깨작거린다. 엄마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여동생 쪽으로 눈을 흘긴다. 일견 젊은 시절 제 식구들은 내팽개치고

씨름판으로 나들던 아빠를 책망하던 그 눈빛이다. 쟀 유도, 언제 그만둔다니. 엄마의 숙덕임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여동생이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 나온다. 여동생의 약간 절뚝이는 품새를 엄마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는 사골국물 말고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냐고 투정을 부려본다. 물릴 대로 물린 느끼한 국물이 도저히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지 않다. 그건 너 뿐만 아니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살 아래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다.

“딴 거 줘!”

“너희 둘 다, 살아가면서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래. 온전할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엄마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따뜻한 사골국물을 내온다. 한국무용을 하는 큰 딸과 유도하는 작은 딸은 동시에 입술을 부루퉁 내민다. 국물 가득 잘게 썬 초록 파를 흠뻑해보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파 틈을 비집고 기름기가 집요하게 솟아오른다. 너는 여동생과 불만스러운 눈짓을 교환한다. 손가락으로 뽀얀 국물을 휘휘 저으며 그냥 허둥지둥 나가는 척 할까 잔피를 굴리다가 너와 여동생은 동시에, 미색 면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꼬챙이처럼 얇은 엄마의 두 다리를 본다. 여동생이 손가락 손잡이로 옆에 앉은 너의 허리춤을 꼭 찌른다.